

탈북아동의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활동과 적응

이제행*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A narrative on Badminton Sports club Activity and Adaption of a North Korean refugee child

Je-Haeng Lee*

Dept. of Physical Education, Gyeong 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이 연구는 한 탈북아동의 초등학교에서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이다. 탈북 이후 남한의 한 초등학교에 편입한 아이가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적응해 가는 모습을 서술적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2017년 초 겨울동안 수집된 자료는 Spradley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텍스트를 분석하고 내러티브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동식이의 처음 남한에서의 생활은 불행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배드민턴 활동을 하면서 생활은 많은 변화가 생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 최교사는 동식이와의 첫 만남을 기억했다.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다. 이후 오랫동안 동식이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런 동식이가 배드민턴에 몰두하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말하는 아이로 변했다. 동식이와 같은 탈북아동에 대한 교육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방향이 중요하다. 탈북아동만을 위한 지원책이 아닌 탈북아동과 일반아동이 서로 다르게 보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 더불어 탈북아동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탈북아동을 넘어 폭넓은 탈북민의 삶을 연구하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 주제어 : 탈북아동,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적응, 내러티브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narrate the feature of a north korean refugee child at an elementary school in south korea through badminton sports cub activity. The narrative was as follows. Dongsik was unhappy at the first time in living here(south korea). After a while he had encountered badminton activity by chance. And he changed his life at the school and he has his own dream now. Teacher choi has remembered the first meeting with Dongsik. Dongsik was a boy who did not talk with anyone. After a long time Dongsik spent his life without uttering a word. Now he has a talk about his dream due to badminton. He dreams of being a badminton player. What is primarily important for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s educational direction. School eduction has to integrate not segregate to participate in all program together. We all have to take both expectation and confidence for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 Key Words : narrative, badminton, sports club, adaption, north korean refugee child

*Corresponding Author : 이제행(jeng@ginue.ac.kr)

Received June 27, 2017

Accepted August 20, 2017

Revised August 8, 2017

Published August 28, 2017

1. 서론: 내러티브를 시작하며

변화라는 것이 꼭 커다란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때로는 너무 작고 사소한 사건이나 만남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동식이와 최교사의 만남이 그러했다. 동식이는 탈북아동이다. 동식이는 이곳에 온 이후 2년간의 적응 교육을 마친 후 I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동식은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걷도는 삶의 연속이었다. 그곳에서 최교사를 만났고 배드민턴도 알게 되었다. 동식에게 배드민턴은 낯선 놀이였다. 이곳에 와서 처음 접했다. 우연히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노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시작하게 되었다. 이 학교에서 6년째 재직 중인 최교사에게 동식이는 어느 날 불쑥 나타난 불청객에 불과했다.

나중에 동식의 처지를 알고 최교사는 동식이의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활동은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 이 학교에 와서는 좀처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식이는 담임교사의 걱정거리였다. 그런 동식이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기고 또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활동이었다.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 오는 것이 좋아졌고, 친구까지 사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장래를 꿈꾸게 되었다. 최교사는 동식이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식이처럼 다른 문화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기대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교사는 교사로서 동식이의 변화를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최교사의 이런 의미 있는 고민이 본 연구자를 통해 이 연구로 이어졌다. 즉 한 아이의 생활이 무엇 혹은 누구로 인해 변화하고 또 그러한 변화가 그 아이의 미래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는 교육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담론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우리 사회에는 동식이와 같은 탈북아동이 적지 않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 연구가 한 탈북아동의 단순한 학교생활이나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피상적인 이야기로 그려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엽적인 관점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는 다양한 문화권의 미성숙한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 공적인 학습 기관이

다. 따라서 초등학교가 이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에 대해 자아를 형성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가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이다.

과거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들[1,2,3]의 주장은 근본적인 교육의 관점을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분리하고 다문화학생들에 초점을 맞춰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제공함으로써 사회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와 결과로 귀결되었다. 즉 다문화학생들만의, 다문화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구별이 바로 ‘다름’이나 ‘차이’를 낳고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최근의 연구들[4,5,6]은 문화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아동과 일반학생이 함께하는 동등한 학습의 기회와 장을 제공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수용하고 인정하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 역시 탈북학생들의 ‘적응’만을 강조한 일방적인 지원책보다는 탈북학생들이 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일반학생들과 함께 하는 통합교육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7,12]은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는 어느 한 탈북아동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보다 넓은 탈북아동들의 교육에 대해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탈북아동들이 지닌 현재의 내적인 갈등과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선정과 이해

연구참여자는 목적표집으로 2명을 선정하였다. 한 명은 탈북 아동인 동식(가명)이고 다른 한 명은 최교사(가명)다. 동식이는 방과 후 배드민턴 스포츠클럽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동식이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처음 온 것은 우리 나이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지만 안성의 적응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현재의 초등학교에 편입한 것은 5학년 때였다. 지금은 6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최교사는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지도교사로, 2011년 첫 임용 이후 6년째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배드민턴 스포츠클럽을

직접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었다. 최교사는 동식이를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동식이의 배드민턴에 대한 열정과 학교생활 태도의 변화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2.2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텍스트를 구성하기 작업은 2017년 1월 방학 중에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1대 1 개별 면담 형식을 취했다. 본 연구자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개인의 자술적인 면담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을 이끌어 내야만 했다. 동식이와의 1차 면담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꽤 오래 진행되었다. 동식이는 끝없이 말을 쏟아냈다. 그래서인지 면담 막판에는 속이 후련하다고 까지 하였다. 연구참여교사인 최교사의 면담은 동식이와의 면담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그대로 전사되었고 분석을 통해 현장 텍스트로 활용되었다.

2.3 연구 텍스트 발견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를 발견하는 것은 전체 내러티브의 줄거리를 구성하고 정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는 질적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Spradley[9]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즉 면담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연구참여자들의 확인 및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별로 범주화·약호화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경험을 발견하기 위해 Spradley가 제안한 첫 번째 단계로 영역분석(domain analysis)을 실시하고 경험 영역이 조직된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을 하였다. 이어서 각 영역에서의 용어가 가지는 속성을 찾는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과 각 경험 영역간의 관계와 장면이라는 전체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찾아나가는 주제 분석(theme analysis)을 통해 연구 텍스트를 발견하였다.

2.4 내러티브 쓰기

내러티브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한 바대로 일인칭 시점에서 이야기 형태로 제시하는 텍스트이다[10].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인 동식이와 최교사의 관점, 그리고 연구자인 나의 관점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본 연

구자는 동식이와 최교사와의 지속적인 대화, 그리고 검토를 통해 연구의 텍스트가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무게를 두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동식이의 자술적 이야기

3.1.1 행복하지 않다

동식이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곳(남한)에서의 생활은 어쩌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른들의 논리일 뿐이었다. 동식이가 바라는 작은 행복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노는 것인데 이곳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동식이는 즐겁게 마음껏 뛰어 놀고 싶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몰랐다. 또 어디서 놀아야 할지도 몰랐다. 무엇보다도 함께 놀 친구가 없었다. 동식이는 그곳(북한)을 떠올렸다. 그곳에서는 집 밖에만 나가면 놀 거리와 친구들로 넘쳐났다. 그 친구들과 아무런 도구 없이 땅에 선을 긋고 뛰어 놀아도 마냥 좋았다. 그저 하늘만 함께 바라봐도 좋았다.

솔직히 지금도 북한 가면 한국에서 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땅을 파도 재밌고 하늘을 봐도 재밌고 친구들도 많은데(동식면담)

외로움이었다. 많은 아이들 속에 속해 있지만 홀로 외로웠다. 이러한 외로움 못지않게 동식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었다. 또래 아이들의 낯선 관심의 눈과 동정 같은 것이었다. 동식이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은 감출 수도 감춰지지도 않았다. 동식이의 익숙하지 못한 행동이나 표현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고 학교 내·외적인 탈북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오히려 동식이와 같은 탈북아동들을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식이는 동정을 받아야만 했다. 아니 동정이라는 이름의 고립으로 내몰렸다. 좀 아는 체 하는 아이들은 동식이와 가족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북한에서 가난해서 왔다거나 살기 힘들어서 못 배운 사람들일 것이라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뭐라고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동식이는 참았다. 어차피 동식이가 뭐라고 항변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동식이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지나쳤다.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는 사이에 또래 아이들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겼다. 그래서 동식은 이곳이 행복하지 못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말 하는 것 듣고 그런 것 같아요(동식면담)

동식은 점점 말 수가 적어지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내성적인 아이가 되었다. 이런 동식과 친구가 되겠다고 선뜻 나서는 아이는 없었다.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도 없었다. 동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좀 더 어린 나이에 이곳에 왔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다. 동식이 이곳 학교에 처음 편입했을 당시는 5학년이었다. 그때 이미 동식은 생각이 많이 자란 아이였다.

3.1.2 변화를 겪다

동식의 이곳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동식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동식에게 변화의 기회가 왔다. 어떤 만남이 변화를 가져왔다. 동식은 운동을 좋아했다. 그리고 잘 했다. 동식은 학교에 오면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동식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았다. 친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놀았다. 이런 동식이 처음 배드민턴을 접하게 된 것은 5학년 봄 어느 날이었다. 방과 후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쳐보고 싶었다. 동식은 배드민턴이라는 놀이를 그날 처음 보았다. 그전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처음 배드민턴 라켓을 잡은 동식은 곧 잘 쳤다. 아니 다른 아이들에 비해 월등하게 잘 쳤다.

저는 5학년 때까지 배드민턴을 몰랐어요. 강당에서 애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서 진짜 재미삼아 쳤어요.(동식면담)

그 날 이후로 동식은 방과 후에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활동을 시작했다. 배드민턴을 시작하면서 동식의 생활과 행동은 변했다. 이전에는 학교가 끝나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PC방, 노래방, 방방 등과 같은 곳을 놀이로 삼았지만 그 이후로는 이런 시간들을 온전히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 투자했다. 배드민턴을 치는 것에서 학교생활의 재미를 찾았다. 동식은 배드민턴 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좋았다. 동식이 스스로도 배드민턴이 좋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굳이 말하자면 셔틀콕을 칠 때 손으로 전달되는 느낌과 타격 음이 듣기 좋았다. 탕, 탕 경쾌하게 체육관을 울리는 그 과열음 소리를 들으면 한없이 행복했다.

배드민턴을 칠 때마다 탕, 탕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한 번씩 힘들 때도 소리 한 번 들으면 힘이 나고 그래요. 그런 게 마음을 행복하게 해요. 그 소리,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탕 치면요 그 라켓 그 뭐냐 즐하고 그 라켓 즐 하고 셔틀콕이 맞는 소리가(동식면담)

동식은 그의 표현대로 배드민턴 ‘파왕’이 되었다. 즉 최고로 잘 치는 사람이라고 했다. 배드민턴만큼은 교내에서 동식이 보다 잘 치는 아이가 없었다. 공부나 다른 부분에서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는 그였지만 배드민턴 하나 만큼은 최고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넘쳤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생겼다. 운동을 잘하는 동식이 주위에 친구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했다. 그냥 이름과 얼굴을 아는 형식적인 친구가 아니라 진정 함께 뛰고 달리고 치며 서로에 대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얻었다.

이렇게 배드민턴으로 전교 1등도 했어요. 운동을 하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친구하자고, 다르게 보는 애들이 아주 많았어요(동식면담)

동식을 가장 먼저 친구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학교생활에 도움을 준 진호는 배드민턴은 잘 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너그러운 친구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호가 배드민턴을 그만 둔 이후로 사이가 멀어졌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많이 마음에 남았다. 주영이는 동식보다 훨씬 먼저 배드민턴을 시작했고 또 개인적으로 레슨까지 받은 경력이 있는 친구로 자세와 기술이 좋아서 체계적으로 레슨을 받지 못한 동식으로서 부러운 존재였다. 동식은 주영이가 치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었다. 배드민턴 실력은 변변치 않아 실수도 잦고 어리바리하지만 공부만큼은 으뜸인 전교회장 민수도 빼놓을 수는 없는 동식이 친구였다. 민수는 동식을 특별히 챙겼다. 동식이 부족한 학업적인 측면에서 공부도 도와주고 숙제도 함께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친구는 종수였다. 동식은 종수가 미웠다. 둘은 만

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다뤘다. 다희의 원인은 하나였다. 배드민턴이 그 원인이었다. 종수는 동식이를 자극했다. 종수 자신보다 동식이의 배드민턴 실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여러 교내 대회를 통해 검증받았다. 그렇지만 종수의 승부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꾸 동식이 주위를 맴돌며 까불고 괴롭히면서 동식이가 작은 실수 혹은 약점이라도 보일라 치면 그걸 가지고 놀렸다. 그래서 동식이는 종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친한 친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5학년 때도 몇 번인가 싸우고 또 종수를 많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친해졌지만 너무 까부는 게 싫은데 이 친구 없으면 배드민턴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동식면담)

동식이의 친구들은 모두 배드민턴을 함께 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 그 이후로 배드민턴 운동은 물론이고 학교 내·외에서도 다른 일로도 자주 만났다. 함께 축구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도 타며 때로는 게임도 즐겼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배드민턴 활동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동식이와 친구들은 6학년에 올라오자 교외 배드민턴 대회 참가의 기회가 주어졌다. 5학년 때는 그저 멀리서 참관하거나 응원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당당히 주전 학년이 된 것이었다. 동식이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다. 그래서 자신감이 대단했다.

동부교육청 대회에서 동메달을 땀어요. 대회에 나가 보니까 제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식면담)

그러나 동식이는 배드민턴 대회에서 패했다. 동식이에겐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과도한 승부욕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만으로는 부족했다. 보다 근원적인 방법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동식이에겐 자극을 주고 또 열정을 불어넣은 친구가 종수였다. 배드민턴을 칠 때면 동식이와 종수는 늘 함께였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학교 밖에서도 함께 배드민턴을 쳤다. 그들은 함께 외부 배드민턴 클럽 활동을 찾아갔다. 좀 거리는 멀었지만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곳이었다. 주중에는 방과 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온종일 그 배드민턴 클럽에서 낯선 어른들과 함께 했다. 동식이와 종수의 배드민턴에 대한 열정은 단지 호기

심이나 취미를 넘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있었다.

종수와 원인재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갔어요. 다른 사람들, 외국인 베트남이랑 또 미국인이랑 많이 와요. 어른들, 누나들, 형들과 치면서 너무 행복했죠(동식면담)

동식이와 종수는 같은 꿈을 꾸었다. 그러나 같은 꿈을 꾸는다고 해서 그 절실함과 열정이 같을 수는 없었다. 동식이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당히 맞섰다.

3.1.3 미래를 꿈꾸다

그렇다. 더 이상 동식이는 무기력하지만은 않았다. 동식이는 자신이 꾸고 있는 꿈을 미래라는 도화지 위해 그려내기 위해 행동해야만 했다. 막연한 환상만을 쫓아다니며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하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었다. 동식이는 배드민턴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고 그러한 꿈을 위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위의 생각은 동식이에겐 호의적이지 않은 않았다. 특히 어른들은 너무 쉽게 동식이의 꿈을 자신들의 기준에서 재단했다. 이미 늦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배드민턴 선수가 되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니, 연습한 게 얼마데 포기하라니. 엄마도 선생님까지 포기하라 할지는 몰랐는데(동식면담)

동식이는 그들에게 물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또 지금 좀 늦게 시작해서 실력이 뒤쳐졌다고 해서 나중에라도 꼭 뒤쳐지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항변했다. 무엇보다도 동식이는 자신은 행복해지고 싶었다. 배드민턴을 해야 행복하다고 믿었다. 동식이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즐겨하는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노래방 등에는 이제 잘 가지 않았다. 배드민턴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배드민턴 운동부가 없었다. 지금까지 온전히 방과 후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했던 것이 전부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식이는 배드민턴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버텼다. 그것이 동식이에게는 삶의 의미였다.

제가 만약 한국에서 운동이라도 못 했으면 진짜 사는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운동을 잘 해서 친구들이 생겼고 버텼어요(동식면담)

이제 동식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였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배드민턴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렇다면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서 배드민턴 운동부에 들어가야만 했다. 동식은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선택을 했다. 운명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배드민턴을 계속할 수 있는 중학교에 지원을 했다. 동식의 거주지와는 거리가 있어서 동식이 지원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동식은 기대와 걱정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그 학교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죽도록 노력할 거예요”. 동식이 여운처럼 남긴 마지막 말에는 의지와 투지의 기운이 묻어났다.

지금부터 죽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진짜로 배드민턴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에만 간다면, 진짜 열심히 할 텐데(동식면담)

3.2 최고사가 들려준 동식이 이야기

3.2.1 말을 하지 않는 아이

최고사가 동식을 처음 본 것은 2015년 1학기 어느 날 체육관에서였다. 최고사 역시 한 반의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년의 다른 반 학생들을 수업에서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고사는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지도교사였기 때문에 방과 후 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배드민턴을 지도했다. 이곳에 동식이 처음 나타난 것이었다. 그 당시 최고사는 이 학교에서 6년차 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학교의 규모 역시 크지 않아서 대부분의 아이들을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낯선 아이의 등장에 관심이 쏠렸고 배드민턴에 관심을 보였던 그 아이(동식)에게 라켓을 건네주며 한 번 쳐보라고 했다. 동식은 처음 보는 운동이라며 머뭇거렸다. 동식이 정도의 나이에 배드민턴을 처음 본다는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최고사는 흘려두고 지나쳤다. 배드민턴 라켓을 건네받은 동식은 다른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힐끗힐끗 보면서 곧 잘 흥내를 냈다. 아니 다른 아이들에 비해 훨씬 뛰어나게 잘 쳤다. 이후로 동식은 배드민턴에 대해 깊은 열정을 보였고 결코 활동에 빠지는 날이 없었다.

동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5학년 때 제가 스포츠클럽 담당인데 배드민턴을 몇 번 쳐줬더니 배드민턴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요(최고사면담)

한참이 지난 후에 최고사는 동식이 이곳 생활이 처음인 탈북아이였다는 사실을 동식이 담임교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 최고사를 찾아온 담임교사는 이곳 생활이 처음인 동식이 걱정이라며 생활지도 차원에서 배드민턴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한 지도도 함께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동식이 배드민턴을 그 무엇보다 좋아하기 때문이었고 더욱이 배드민턴 지도를 맡고 있는 최고사의 말이라면 그 누구의 말보다 잘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은 동식이 이곳 생활을 모르고 공부 쪽이 약하니까 데리고 운동하면서 공부도 장려해 달라. 내 말은 잘 들으니까(최고사면담)

동식은 여느 아이들과 외모 면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하얀 피부와 그 또래보다 약간 큰 키, 그리고 조금 마른 듯 보이는 체형. 외모로만 비교한다면 훨씬 더 좋은 집안의 아이처럼 보였다. 그래서 최고사도 동식이 탈북아이였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식은 말이 없었다. 아니 말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를 사귄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동식이 자신이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장난처럼 따라하면서 놀리는 것이 싫었다. 그 때만 해도 동식은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곳의 말에 익숙하지 않았고 또 억양이나 표현은 더욱 서툴렀다.

이 친구는 일단 뭐 말수가 적어서 그냥 얼핏 봐서는 이 친구가 북한에서 온 친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최고사면담)

또 동식은 자존심이 매우 강했다. 동식은 자신이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다. 다른 탈북아이들과 달리 학교 측에서 마련한 각종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싫었다. 특히 또래 학교 아이들의 부담스러운 동정의 눈길에 대해 강한 내적인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런 동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동식은 철저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을 줄였다. 그래서 최고사는 동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말과 다르게 행동만큼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특히 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고 또 잘했다. 이런 동식에게 배드민턴 활동은 늘 함께 하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생활하는 걸 보면 자존심도 세요. 그래서 스포츠 관련에서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등 체육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이더라고요(최교사면담)

3.2.2 꿈을 말하는 아이

동식이는 배드민턴에 푹 빠졌다. 배드민턴을 칠 때면 한없이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배드민턴을 쳤다. 처음에는 최고사로부터 기본기를 배웠다. 나중에서는 같은 학년 아이들이나 한 학년 위의 6학년 형이나 누나들과 함께 연습을 하거나 시합을 주로 했다. 동식이의 실력은 날로 늘었고 어느 순간에는 선배들까지 능가하는 수준에 올라왔다.

6학년 형들, 누나들 연습할 때 옆에서 같이 연습하더니 학기 말에는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6학년들 형들이나 우리학교 대표 형들도 이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최교사면담)

동식이의 생활은 눈에 띄게 변했다. 배드민턴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물론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내성적인 면을 보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배드민턴 운동을 할 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동식이는 최고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자기주장까지도 했다. 함께 배드민턴 활동을 하는 친구들과도 대화의 기회도 많아졌고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 배드민턴을 하면서 생긴 작은 변화가 동식이의 학교생활 전반을 전혀 다르게 이끌었다. 동식이는 더 이상 내성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출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말 안하고 이런 성품인데 운동을 하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 주더라고요. 대화나 이런 기술들이 좋아지고 자기의 생각도 많이 오픈하는 편으로 변했어요(최교사면담)

동식이는 배드민턴을 무척 잘 쳤다. 승부욕도 강했다. 배드민턴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다. 한번은 최고사와 배드민턴 시합을 한 적이 있었다. 최고사는 동식이에게 자신의 수준을 알게 해주려는 점점 차원에서 가볍게 시합을 제안했다. 이 시합에서 동식이는 최고사에게 졌다. 이때 동식이는 시합에서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울었다. 이런 동식이의 강한 승부욕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동식이는 그 이후로 더욱 열심히 배드민턴을 연습했다. 심지어 학교 밖 클럽 등에서도 배드민턴을 쳤다.

동식이에게 배드민턴은 좋은 친구이자 놀이였고, 자신의 미래였다. 그 또래 아이들이 즐겨하는 컴퓨터게임에도 빠져들지 않았다. 당연히 뒷골목 싸움이나 술, 담배 등과 같은 비행과도 거리가 멀었다. 물론 최고사의 노력도 한 몫을 했다. 최고사는 동식이에게 배드민턴을 지도했다. 더불어 생활에 필요한 인성 지도도 잊지 않았다. 동식이는 파트너십과 팀워크는 물론 게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과를 구하는 예의, 그리고 시합에서 승패에 대한 귀인과 노력 등을 배웠다. 최고사는 동식이를 비롯해서 함께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컴퓨터 게임도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굉장히 순수해요. 싸움과 같은 비행도 없어요(최교사면담)

동식이는 학교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높지 않은 것도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하는 법을 몰랐다. 그도 그럴것이 다른 탈북아동들에 비해 늦은 나이인 5학년에 이곳 학교에 처음 편입해서 학교수업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요구하는 선행학습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기초학습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 혼한 학원에도 다니지 못했다. 복지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동식이에게는 유일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동식이에게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자각은 있었다. 학업 성적 때문이 아니었다. 동식이 자신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식이는 배드민턴 선수가 되는 게 꿈이고 또 그렇게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운동만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지 않았다.

최교사는 동식이가 배드민턴 선수가 되고자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동식이에게 배드민턴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해 주지 못하는 최고사 자신이 미안했다. 동식이도 이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교외 배드민턴 클럽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했다. 중학교에 올라가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동식이가 배드민턴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기회일지도 몰랐다. 동식이는 부모님이나 몇몇 선생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에 지원서를 넣었다. 주위에서는 동식이이 운동 선수로 성공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우려를 했다. 그러나 최교사 만큼은 동식이를 지지했다. 동식이의 열정과 노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식이는 습득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욕심도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끈질기게 도전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최교사면담)

동식이에 대해 중학교 진학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었다.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때까지 동식이에 대해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동식이 만든 자신의 선택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최교사는 그런 동식이를 묵묵히 응원했다. 동식이가 배드민턴 선수로 성공하기를..... 동식이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배드민턴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배웠으면 합니다(최교사면담)

3.3 다시 되돌아 본 동식이 이야기

이 연구는 최교사와의 작은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최교사는 K초등학교에서 4년 동안 배드민턴 스포츠클럽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 대학에서 나(연구자)에게 배드민턴을 배운 것이 계기가 되어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면서 나름의 성과도 이루었다. 그런 최교사가 어느 날 동식이라는 탈북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배드민턴 활동 이후 눈에 띄게 학교생활에서 행동과 태도가 좋아졌다고 했다. 동식에 대한 최교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나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 위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의 연구결과 1과 2가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라면 연구결과 3은 본 연구자의 해석적인 관점이 반영된 이야기이다. 나는 동식이와 최교사의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벽이 있음을 느꼈다. 그 하나가 동식이와 같은 탈북아동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의 벽이었고 다른 하나가 아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3.3.1 관점1: 다르게 보지 않기

동식이와 첫 면담이 있는 날. 나는 동식이네 학교를 방문했다. 최교사의 안내로 상담실에 들어선 나는 두 아이와 마주했다. 그 때까지 나는 동식이의 얼굴이나 특성을 알지 못했다. 하얀 피부에 큰 키, 그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잘 생긴 아이와 가무잡잡한 피부에 또래에 비해 유난히 작은 키,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한 아이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작은 키에 보잘 것 없는 외모를 한 아이에게 쏠렸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키가 작고 보잘 것 없는 외모의 아이를 동정과 연민의 눈길로 바라봤다. 그러나 나의 선택이 틀렸음을 확인하는데까지는 그다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교사의 소개로 동식이와 나는 어색한 첫 대면을 했다. 나의 마음의 한 칸에는 미안함도 자리했다.

동식이도 이러한 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괜찮다고 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나가는 말로 응대했다. 동식이는 이곳(남한)에 온 이후로 많은 편견과 선입견과 마주해야 했다. 특히 또래 아이들은 별 생각도 없는 말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탈북민에 대해 가난하다, 못 배웠다, 불쌍하다 등과 같은 어른들의 생각이나 말을 그대로 옮겼다. 동식이는 이것이 못마땅했다. 물론 가난해서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잘 배우고 잘 살던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속상했다. 동식이는 탈북민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항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내 체념했다.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또래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동식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북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느꼈기 때문이다. 동식이가 바라보는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은 이방인이거나 불청객일 뿐이었다. 사회 곳곳에서 탈북민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 등을 계도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편견이나 선입견을 만드는 또 다른 장치에 불과했다.

내가 만난 동식이는 여느 아이와 다르지 않았다. 내색만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가정의 아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선을 그었다. 교육 당국에서는 탈북 아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면서 탈북 아이들의 삶을 다르게 이끌어 가려고 했고, 학교 친구들은 출신과 같은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동정했다. 그러나 동식이와 같은 탈북아이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지원이나 혜택, 동정이 아니다. 다르지 않게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즉 탈북 아동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다수자의 관점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상의 또래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탈북 아동을 위해 교육 당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소수의 탈북 아동만을 따로 분리해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탈북 아동과 그 외의 아동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보다 폭 넓게 활용해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공익광고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주제의 광고로 한의사, 교사, 봉사원 등의 사회적 위치에서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고자 내용이다. 물론 설득력도 있고 공감도도 충분하며 더욱이 감동의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탈북민들이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 있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위축당하지 않고 특별하게 취급 받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이다. 사회적 소수자를 밖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평범한 일상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 말이다. ‘북한 아이’[11]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원이나 혜택이라는 명분으로 다르게 보고 취급하는 것 역시 차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결코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있는 듯 없는 듯, 아는 듯 모르는 듯, 함께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 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일상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들 스스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문화적 다수자와 소수자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를 통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6,12]이 다문화 아동에 대한 교수 학습방법은 일반 학생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13] 보다는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어쩌면 다수자의 관점에서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배려가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3.2 관점2: 믿음과 기대를 통한 유능감 주기

동식이는 나와서 면담 말미에 울먹였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모두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있는 그대로 들어줘서 내게 고맙다고 했다. 나의 관점에서 동식이는 속이 깊은 아이였다. 채 초등학교도 마치지 않은 나이에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식이의 내적 성장에는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배드민턴을 만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배드민턴을 치면서 친구를 사귀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고 또 장래를 준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식이는 배드민턴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다. 충분한 자신감도 있었다. 단지 주위의 반응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 문제였다. 동식이의 꿈에 대해 믿음을 주고 기대하기 보다는 설부른 판단만을 일삼았기 때문이었다. 운동선수로 성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다. 포기하라고도 했다. 운동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동식이에게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안 된다고 충고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 아는 것, 더 나아가서 믿고 싶은 것만을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들만의 ‘아집’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기성세대라 불리는 어른들의 고착화된 생각은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 왜냐하면 ‘공감’ 보다는 ‘판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작은 믿음과 기대감에서 오는 공감은 도전으로 이어지지만 부정적 판단은 포기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동식이와 같은 아이들의 어쩌면 부모하고 엉뚱한 지금의 생각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또 도전을 넘어 미래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 동식이에게는 지지와 응원이 필요했다.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안 된다’ 거나 ‘할 수 없다’ 라는 등의 전지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내가 만난 동식이의 배드민턴 선수에 대한 의지와 투지는 분명해 보였고, 그 노력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한 도전이 진행형이라는 점이었다. 동식이에게 남은 것은 그를 믿어주고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주위의 격려와 응원이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13]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신뢰[14]는 학생의 학교생활이 원만하게 되고 향후 삶을 살아가거나 성장, 발전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학생이 그 자체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부모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미치는 과급력은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15,18]은 학생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진로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탈북 아동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초기의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가 매우 크고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11]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결론: 내러티브를 마치며

나는 동식이의 근황을 모른다. 동식이는 중학교에 진학했을 것이다. 동식이가 희망하는 배드민턴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에 가서 배드민턴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멀리서 동식이가 원하는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이 가 있기를 응원했다. 동식이는 이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도전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다.

동식이와 같은 탈북 아동은 매년 증가하여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1000명을 넘어섰다[18]. 앞으로도 더욱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흔히 다문화사회라고 부르는 다양한 구조 속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더욱이 학교 교육은 그 어느 영역보다 면밀한 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은 2001년 아동 낙오방지법[19]을 공교육의 틀에서 시행하였다. 언어적인 한계와 장애를 가진 학생 모두를 포괄하는 법으로 모든 학생들이 중도 탈락 없이 학업을 마침으로써 학업 낙오에서 오는 소외를 방지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실제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교육정책과 노력이 다문화사회의 관점에서 요구된다.

동식이의 학업 수준은 한참 뒤쳐져 있었다. 동식이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 해볼 방법이 없었다. 동식이도 공부를 잘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 비해 공부에 대한 기본 바탕이 없었고 가정에서 투자하는 지원 역시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동식이는 이곳의 아이들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이런 동식이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공부가 아니었다. 공부가 아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었다. 배드민턴은 얼마든지 자신감도 있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동식이에게 배드민턴은 미래였고 또 희망이었다. 배드민턴을 통해 자신의 장래 삶을 설계하고 성취해가면서 살아가고자 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는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 동식이와 같은 다양한 아이들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곁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응원해 준다면 많은 아이들의 미래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REFERENCES

- [1] J. W. Kim, "Diagnosis and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focused on elementary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Vol. 1, No. 1, pp. 135-157, 2010.
- [2] K. H. Noh, "A study on the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and issues about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Vol. 11, No. 3, pp. 839-868. 2011.
- [3] S. B. Oh, "An exploratory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t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Idea*, Vol. 24, No. 2, pp. 149-170. 206.
- [4] C. M. Park, J. S. Jo, Y. C. Kim, "For the better future: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dilemma of the multi-cultural curriculum in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9, No. 1, pp. 185-213, 2016.
- [5] K. J. Seol, "The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 holistic educational perspective and caring." *Journal of Holistic Education*. Vol. 13, No. 3, pp. 17-36. 2008.
- [6] J. H. Lee, "The study on the peer-mentoring experience and value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Vol. 18, No.

- 2, pp. 37-54. 2012.
- [7] S. M. Chung, H. H. Yoon, "A content analysis on programs in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education policy-research school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2, No. 6, pp. 513-536. 2016.
- [8] S. S. Ju, K. S. Kim, "A exploratory analysis of theory and application of sport pedagogy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ocusing o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 22, No. 1, pp. 129-149. 2015.
- [9] Spradley, J. P., "Participant observation." NY: Hot, Reinhart & Winston, 1980.
- [10] Polkinghorne, D. E., "Narrative configuration in qualitative analysis."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Vol, 8, No. 1, pp. 5-23. 1995.
- [11] G. H. Yoo, E. R. Bang, E. G. Han, "A case study on school achievement and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Vol. 22, No. 5, pp. 185-196. 2004.
- [12] J. H. Lee,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holistic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Holistic Education*. Vol. 14, No. 1, pp. 119-136. 2006.
- [13] S. M. Kim,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expectation and parent styl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 based on gender and birth order"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jou, Gyeonggi-do, 2014.
- [14] R. M. Choi, D. H. Kim,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 of trust in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dea*, Vol. 30, No. 3, pp. 177-197. 2016.
- [15] N. G. Kim,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about an occupation on career interes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Konkuk University, Seoul, 2000.
- [16] D. W. Kim, L. S. Shin, S. Y. Kim, "The effect of physical competence using convergence on satisfaction with physical education class." *Journal of the Korea Coverage Society*, Vol 8, No. 4, pp. 255-264, 2017.
- [17] NCLB, "No Child Left Behind Act."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No_Child_Left_Behind_Act, 2001
- [18] North Korean Refugee Youths Education Support Center, " North korean refugee youths in south korea." Retrieved from <http://www.hub4u.or.kr/hub/edu/status01.do>, 2016
- [19] D. H. Jwa, M. Y. Lee, S. Y. Ji, "A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support systematization method" Research Report from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p 1-136, 2016.

저자소개

이 제 행(Je-Haeng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체육학석사)
- 2005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 대학원(이학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체육교육학, 사회체육, 다문화교육, 스포츠융합